

LS ELECTRIC 010120

4Q21 Review: 서서히 회복 중

유틸리티/철강

Analyst 문경원, CFA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4Q21, 전력기기와 자동화 사업 부문의 부진

4Q21 연결 영업이익은 443억원(+35.9% YoY)을 기록하며 컨센서스(508억원)와 당사 예상치(581억원)을 하회. 사업 부문별 실적은 전력기기 232억원(-17.1% QoQ), 전력인프라 129억원(흑전 QoQ), 자동화 43억원(-49% QoQ), 신재생 -20억원(적축 QoQ), 자회사 합산 63억원(-39% QoQ).

연결 자회사 전력인프라 부분 이익이 기대대로 큰 폭으로 개선된 반면 전력기기와 자동화 솔루션, 자회사 등 전력인프라 외 사업 부문의 이익은 악화. 매출액보다는 마진 악화가 원인. 특히 전력기기 부문과 자동화 부문의 이익률은 각각 13.1%, 5.4%로 전분기 대비 각각 -3.1%p, -4.7%p 악화. 원재료비 비용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

수주는 호조 지속. 2022년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

4Q21까지 전력부문의 수주 잔고는 지속 상승. 관공서 및 민간(배터리, 데이터 센터)에서의 수주가 골고루 이어지고 있기 때문. 따라서 전력인프라 부문의 실적 개선세는 2022년에도 이어질 전망. 또한 최근 대규모의 태양광 수주 역시 긍정적. 임자도(889억원), 비금도(3,301억원) 프로젝트 수주가 각각 2021년 8월, 12월 이루어졌으며, 관련 매출이 2022년 인식됨에 따라 융합 사업부의 연간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1Q22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감익이 예상됨.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전력인프라, 신재생 사업부의 매출 상승폭이 커지면서 이익 개선세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2022년 연간 10% 이상의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표1 LS ELECTRIC 4Q21 실적 Review									
(십억원)	4Q21P	4Q20	(% YoY)	3Q20	(% QoQ)	컨센서스	(% diff.)	당사 예상치	(% diff.)
매출액	770.4	610.2	26.3	682.6	12.9	725.1	6.2	683.4	12.7
영업이익	44.3	32.6	35.9	40.4	9.6	50.8	-12.7	48.3	-8.2
세전이익	41.0	34.3	19.4	11.3	262.2	51.8	-20.9	45.4	-9.7
순이익	29.6	20.5	44.4	8.1	265.4	37.6	-21.4	32.8	-9.8

자료: SGC에너지,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